목회의 프락



이동균 목사
하성교회 담임

나이 들어 그림책을 읽는다

이제 일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어린이 책들이 좋아졌다. 무거운 책은 들기도 버겁다. 젊은 날에는 보통 사보기 어려웠던 두꺼운 책들, 값이 제법 나가는 책들을 사서 읽었다. 설교를 준비하며 철학과 역사, 사회와 환경에 관한 책들을 찾았다. 이제는 책의 무게가 손목에 먼저 느껴진다. 읽어도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고, 앞에서 읽은 내용을 잊어 다시 펼치기도 한다. 그러다가 그림이 너무히 담긴 어린이 책 앞에서 자주 걸음을 멈춘다.

글과 그림이 함께 있는 책에는 머물 자리가 많다. 문장을 따라가다가 그림에 눈길을 주고, 그림을 들여다보다가 내 기억 속의 한 장면을 만난다. 그림을 읽는다는 말이 나는 좋다. 붓의 움직임을 읽고, 그린 사람의 내면을 헤아리고, 그림 속에 담긴 시를 읽는다.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여백에도 눈길이 간다. 그 자리에 잠시 머물면 내 마음에서 어떤 이야기가 일어날 것 같다.

올해는 스물다섯 권짜리 한국사 책을 준비했다. 그림과 글이 반반쯤 들어 있는 책이다.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우리 역사를 차분히 살펴보고 싶었다. 고향 초등학교의 백 년 역사를 쓰면서 조선 말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시간을 부지런히 오갔다. 나라의 큰 사건들 사이로 작은 학교와 마을 사람들의 삶이 보였다. 이제는 그보다 앞선 시대까지 더듬어 보고 싶다. 그림 속 옷차림과 집, 손에 든 도구를 살피며 그 시절 사람들의 하루를 상상해 본다. 기록에 이름을 남기지 못한 이들의 말소리도 들어보고 싶다.

자연에 관한 책들도 곁에 가득하다. 꽃과 나무, 동물과 곤충, 물과 지층을 그림으로 살펴보는 일이 즐겁다. 곤충도감과 식물도감, 악조도감을 널마다 펼쳐 이름을 익히고 싶다. 외웠다가 잊으면 또 보면 될 일이다. 잎맥의 모양과 꽃잎의 빛깔을 들여다보며 산과 들에서 무심히 지나쳤던 생명들을 생각한다. 도감에서 익힌 얼굴을 숲에서 알아본다면 얼마나 반가울까.

서유구 선생의 『임원경제지』를 풀어 쓴 책도 그림과 함께 읽고 싶다. 옛사람들은 땅을 일구고 나무를 기르며 살림을 꾸리는 지혜를 어떻게 모았을까. 책에 담긴 농사와 생활의 이야기를 오늘 내가 가꾸는 밭과 숲에 비추어 보고 싶다. 오래전 누군가가 살피고 기록한 것이 세월을 건너 내 손에 닿는다. 그 문장 곁에서 흙 묻은 손을 잠시 쉬며 이야기를 나누는 기분으로 읽어도 좋겠다.

미술책도 기다리고 있다. '이야기가 있는 미술'을 읽으며 여러 화가들을 만나고 싶다. 예전에는 이름난 그림들을 서둘러 보고 들어서곤 했다. 이제는 그림이 태어난 배경과 그것을 그린 사람의 삶이 궁금하다. 붓은 어디에서 힘을 얻고 어디에서 머뭇거렸을까. 저 빛깔에는 어떤 기쁨과 슬픔이 스며 있을까. 화가의 생애를 읽은 뒤 다시 그림을 보면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눈에 들어올 듯하다.

오래전에 읽은 『삼국지』도 기억이 희미하다. 해설을 곁들여 읽기 좋은 책을 준비해 두었다. 젊은 날 마음을 빼앗겼던 인물을 지금도 좋아할지 궁금하다. 큰 뜻을 품고 나아가는 모습 곁으로 망설임과 후회도 눈에 들어올 것 같다. 같은 이야기를 다시 읽으며 세월을 건너온 내 마음도 함께 읽어보고 싶다.

어린이를 위한 위인전에도 남은 내 삶에 필요한 이야기가 많다. 인생의 고비를 어떻게 헤쳐 나왔을까. 뜻대로 되지 않는 날에는 누구에게 마음을 털어놓았을까. 훌륭한 업적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실패와 외로움에도 눈길을 주고 싶다. 그들의 생애에 공감하면서 아직 걸어야 할 내 삶의 길을 생각해 본다.

과학책은 질문을 품게 한다. 우주와 지구, 바다와 날마다 쓰는 도구들까지 궁금한 것이 많다. 그림으로 펼쳐놓은 땅속과 바닷속을 바라보며 눈앞의 풍경 너머를 생각한다. 작은 생명의 몸 안에도, 밤하늘의 먼 별에도 내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 알고 싶은 것이 아직 이렇게 많다는 사실이 반갑다.

작은 소망도 생겼다. 보고 싶은 책을 커다란 디지털 화면에 펼쳐놓고 편안히 누워서 읽는 것이다. 돋보기를 찾지 않아도 가느다란 선과 작은 글씨가 잘 보이면 좋겠다. 그림을 읽고, 음악을 보고 싶다. 선율을 따라 내 마음에 떠오르는 빛과 풍경을 바라보고, 그림 앞에서는 그 안에 흐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싶다. 소나무를 흔들며 바람을 느끼고, 향기에서 계절의 소식을 알아차리듯 책과 만나고 싶다.

이렇게 책을 읽고 싶은 데에는 글쓰기의 욕심도 있다. 기억의 폭을 넓히고 생각을 깊게 하여, 내가 보고 느끼는 것들을 내 말로 적고 싶다. 그림에서 들은 이야기와 음악에서 본 풍경을 몇 줄이라도 남기고 싶다. 오늘 읽은 책이 어제의 경험을 새롭게 비추기도 하고, 잊고 지냈던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주기도 할 것이다. 그때 마음에 일어나는 작은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써보고 싶다.

오래 살아온 만큼 생각도 굳어졌을 것이다. 경험이 쌓이면서 익숙한 답을 너무 빨리 꺼내놓지는 않았는지 돌아본다. 어린이 책을 펼치며 다시 묻고, 놀라고, 귀 기울이는 연습을 하고 싶다. 내가 아는 이름으로 서둘러 설명하기 전에 조금 더 바라보는 여유를 갖고 싶다. 늦게 알아차린 것이 있으면 기쁘게 받아들이고, 다른 생각을 만나면 내 마음에도 자리를 내주고 싶다.

예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신 말씀도 떠오른다. 오래 믿고 가르쳐 온 내게도 배우는 겸손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작은 생명과 이웃의 이야기에 새롭게 마음을 열고 싶다. 나이 들어 그림책을 읽는다. 아직 읽지 못한 빛깔과 듣지 못한 이야기가 많다. 오늘은 한 장의 그림 앞에 머물며, 그 여백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천천히 기다려보려 한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두상달 칼럼



두상달 장로
가정문화원 이사장

다른 것과 틀린 것

다른 것과 틀린 것

서로 다른 사람이 부부로 만나 살아가는데는 갈등과 아픔이 있다. 특히 부부간에 두 사람의 성격차이는 갈등의 가장 큰 빌미가 되기도 한다. 부부간의 성격 차이 중에 극복될 수 없는 것이란 없다. 부부가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부가 다른 것은 엄청난 축복이다. 그 다름이 축복이 되는데는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된다. 경계를 벗어난 다름은 다른 것이 아니고 틀린 것이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은 엄연히 구분된다.

회장님은 어느 쪽입니까?

나라의 국론이 극도로 분열되어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가장 심각한 것은 남남의 이념갈등이다. 나는 평생 정당에 가입한 일이 없다. 그 대신 나는 수많은 NGO단체를 섬겨왔고 지금도 섬기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기구들도 있어 많은 회원들이 있다.

그 중에 엉뚱한 질문을 해오는 회원들이 있다. 회장님은 어느 쪽입니까? 3년여 전부터이다.

최근에는 광화문쪽이냐 서초동쪽이냐고까지 물어오기도 한다. 그러면 나는 되물어본다. 당신은 내가 어느 쪽이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대답을 안한다. 걸려온 전화가 어느 지방에서 왔느냐에 따라 다르다. 전화를 받으면 내가 어느 쪽이기를 그 사람이 바라는지 바로 알수가 있다.

내 대답은 항상 이렇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올바른 국가관과 시대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공인의 입장에서 "나는 어느 쪽도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당 일뿐이다." 그러면 더 이상 말이 없다.

국론이 여러가지인 것은 다양성이고 국력이 될 수도 있다. 다양성 속에서 최선의 선택이 이루어지면 그 다른 것들이 더 큰 발전으로 가는 통로가 된다. 그러나 거기에는 꼭 전제조건이 있다. 그 다른 것들이 정해진 경계선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 경계선을 벗어난 것은 반칙이다. 그 경계는 국가정체성의 선이고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이다.

나는 이 나라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꽃이 활짝 피기를 기도한다. 이 것은 핵심가치이고 이것을 허무는 것은 경계를 벗어난 것이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다.

차이도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이 틀린 것들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분명 구분돼야 한다. 경계선 밖에 서있는 사람들이나 주장들은 경계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현명한 국민들은 그 경계선을 알고 있다. 그리고 다른 것과 틀린 것도 구분할 줄도 안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

남편의 구원

주님, 남편을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원수로부터 구원하소서. 남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귀의 간계에 능히 대항할 수 있게 하소서. 그를 도우사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며,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게 하옵소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시키는 믿음의 방패를 갖게 하옵소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하시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깨어나 끝까지 강건하게 하옵소서.

엡6:13~18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시 91:14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여
저희는 나보다 힘센 연고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시 18:16~19

남편의 순종

주님,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겠다 시 66:18 하셨습니다. 혹시 제 삶 중에 특히 남편과 관련하여 불순종하는 부분이 있는지 알려 주소서. 제가 그에게 이기적이거나, 매정하거나, 비판적이거나, 화를 잘 내거나, 용서하지 않은 것을 알려 주소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기 원합니다.

남편에게 주의 율법과 도에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주께로 말미암지 않은 것에 대한 남편의 집착을 근절시켜 주옵소서. 모든 생각과 행동을 주의 통제 아래 두게 하옵소서. 그로 하여금 선을 행하고, 아무도 훼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온유하고, 또한 겸손하게 하옵소서.

딛 3:1~2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잠 3:1~3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 66:18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잠 28:9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2026학년도 총회신학 신 · 편입생 모집

본 총회신학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인준 정통 보수주의 신학연구원입니다. 정교도적 개혁주의 보수신학의 요람으로서 신학과정을 이수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강의를 중심으로 말씀의 기초에 튼튼히 설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성실한 길잡이가 되도록 본 총회신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정	모집학과	학제	모집인원	자격
신학부	신학과 (주말반, 야간)	8학기	30명	고졸, 세례받은 자 전문대졸자는 3학년 편입가능
	목회학과 (주말반, 야간)	8학기	20명	세례받은 자, 평신도, 사명자
신학연구원	신학과 (주말반, 야간)	6학기	00명	신학부 졸업 및 졸업 예정자 동등학력 소지자
	목회학과 (주말반, 야간)	6학기	00명	
학술원	성경심화과정	2년	00명	목회자, 신대원 졸업자
평신도 성경연구반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체계화함, 4학기(1년) 평신도 지도자 과정 후 신학 과정에 편입할 수 있음			
특전	신대원 졸업자는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에 편입 가능 여목제도 있음			

통신과정
1. 시간, 지역,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석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사명자는 통신으로 전과정을 이수하고 목사고시를 거쳐 안수 받을 수 있습니다.
2. 능력별로 이수하므로 조기에 졸업할 수 있습니다.

365일 언제나 입학가능! 실패, 학비, 나이 학력 모든 걱정 내려놓으시고 오세요!



총장 신혜란 목사

대표전화
062)511-2491
010-3161-2491
http://www.gchongsin.com

원서교부 및 접수처
원서교부 : 광주, 전주, 순천 총회신학
원서접수 : 수시 접수
*전형료는 없음

총회신학의 장점
최고의 교수진이 있습니다.
남 · 여 목사안수 / 각종 장학혜택
교회개척 및 설립인허, 법인등록 등
각종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입학문의
광주 062)511-2491
전주 063)272-2491
순천 061)751-2491
수양관(곡성) 061)362-2491

광주광역시 북구 태봉로 56(신안동)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39(금암동) 전남 순천시 중앙3길 4(장천동)